

최형우 타격왕, 윌리엄스 감독에게 물어봐

로하스와 타율 1위 대결

“덕아웃 계산기에 놀라지 말라”

남은 경기 출전 여부 놓고 농담

최형우 “감독 뜻에 따를 것”

‘타격왕’을 놓고 최형우와 윌리엄스 감독이 딜레마에 빠졌다.

KIA 타이거즈의 2020시즌 마지막 한 주가 예상과 달리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아직 순위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대들과의 싸움 그리고 최형우는 치열한 ‘타격왕’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10회 연장 승부까지 진행됐던 28일 KT전에서 최형우는 로하스를 누르고 타율 1위 자리에 올랐다.

로하스는 이날 안타 없이 삼진만 기록하면서 ‘4타수 무안타’로 소득없이 하루를 보냈다.

반면 최형우는 첫 타석에서부터 선제 투런포를 날렸고, 승부가 3-3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들어선 9회말 네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기록하는 등 4타수 3안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이 경기가 끝나고 최형우의 타율은 0.353이 되면서 1위가 됐고, 로하스는 0.350으로 2위로 내려왔다.

최형우는 이날 28번째 홈런도 기록하면서 ‘30홈런-100타점’에도 2개의 홈런만 남겨두고 있다. 최형우는 최근 격일로 담장을 넘기는 등 놀라운 페이스로 10경기에서 6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평소 기록에 대한 욕심을 크게 내비치지 않은 최형우지만 눈앞에 기록이 보이자 마침내 ‘욕심’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28일 경기가 끝나고 “옆에서 동생들이 타율 이야기했는데 신경 안 쓰고 있었다. 마지막 5경기 남을 때까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욕심내고 싶다”며 “여기까지 왔으니 30홈런도 욕심 내보겠다”고 웃었다.

스스로 놀란 홈런 페이스와 2016년 타격왕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타격감으로 막판 스퍼트에 나선 최형우, 눈앞에 고지가 보이면서 고민이 생겼다.

8개 팀의 정규시즌은 예정대로 30일에 끝나지만, KIA는 비로 취소됐던 NC전이 남아있어서 가장 늦은 31일 최종전을 치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형우의 타격왕 도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형우는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내일, 모레까지 하고 1등이면 쉬려 한다”며 “인터뷰기사 보니까 내가 이야기 안하면 감독님이 계속 내보낸다고 하시더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타격왕’ 공을 윌리엄스 감독에게 넘긴 최형우, 29일 경기 전 최형우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윌리엄스 감독은 크게 ‘땡큐’를 외쳤다.

윌리엄스 감독은 “사실 최형우 선수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물다 탈레마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웃었다.

이어 “그 상황이라면 아웃 하나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을 것이고, 안타를 치거나 볼넷으로 나갈 때도 정확히 타율을 알고 있을 것이다”면서 “이를 동안 최형우의 기록적인 부분 몸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겠다(웃음). 덕아웃에 계산기가 있어서 놀라지 말라”고 말해 취재진을 웃겼다.

윌리엄스 감독은 그리고 ‘탈레마’에서 벗어날 명쾌한 해결법도 제시했다.

그는 “탈레마인 것 같다”면서 “(최종전 전) 이를 동안 안타 6개 정도 치면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다시 한번 인터뷰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5년만의 첫 승 김현준 한 톱...호랑이 군단 기분좋은 커피잔치

‘호랑이 군단’이 기분 좋은 커피 잔치를 벌였다.

KIA 타이거즈의 고졸 5년 차 김현준(사진)은 29일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을 나섰다. 동료들과 프런트에 대접한 커피를 챙기느라 오전부터 분주했던 김현준.

그는 KT와의 경기가 열린 전날, 연장 10회 4-3 끝내기 경기의 승리투수였다. 프로 데뷔 후 첫 승이다. 2016년 우선지명으로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고향팀에 입단한 김현준에게 올 시즌은 프로 데뷔 시즌이다. 앞서 한 차례 1군 등록된 적은 있지만 마운드에는 오르지 못했다.

2년의 군 복무를 마친 김현준은 올 시즌 다시 야구를 시작했다.

5월 5일 키움전을 통해 프로데뷔전을 치른 그는 25일 삼성전에서 프로 첫 홈드를 기록했고, 이어 28일에는 승리투수가 됐다.

미웠던 박준표가 황대인과 김규성의 연속 실책으



로 이를 연속 블론세이브를 기록했던 28일, 김현준은 3-3으로 맞선 10회 초 마운드에 올랐다.

첫타자 장성우에게 안타는 맞았지만 이후 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는 루킹 삼진이었다.

김현준은 “상대 실책 나올 때 우리 타수가 좋아서 승리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분은 좋는데 똑같은 것 같다. 실감은 잘 안 나는데 옆에서 많이 축하를 해주셔서 ‘첫승했구나’ 생각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하지만 가장 애타가 승리 순간을 기다렸던 부모님들은 아들의 첫 승 장면을 놓쳤다.

김현준은 “아버지께서는 9회 동점 가니까 텔레비전을 끄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회식에 가서 못 보셨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예상치 못하게 올라간 마운드였지만 자신감 있게 승부했다.

그는 “동점 되고 나서 몸 풀라는 사인이 났다. 9회 말에 끝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잘 안됐다”며 “선두타자 내보내고 보내기 번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2루가 있으니 오히려 더 편했다. 1루에 신경 쓸 것도 많고 도루도 줄 수 있는데 편하게 했다. 하위타수라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마지막 타자(천성호)가 초등학교 동창이었다(웃음).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다”고 웃었다.

이어 “남은 경기에서 또 올라가면 자신 있게 하겠다. 내년에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시즌에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K리그1 우승키 쥐고 시즌 최종전



광주FC가 내달 1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현대를 상대로 2020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염원상이 펠리페, 윌리엄스와 삼각편대를 구성해 우승에 도전하는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노린다. <광주FC 제공>

내달 1일 울산현대와 원정경기

전북 지고 울산 이기면 울산이 우승

박진섭 감독 “하던대로 하겠다”

광주FC가 K리그 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2020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광주는 내달 1일 오후 3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현대와 K리그1 2020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코로나19라는 상상하지 못했던 변수 탓에 5월 8일 뒤늦게 시작된 K리그1은 이날 2020시즌 대장정을 끝낸다.

울산으로 가는 광주의 행보에 팬의 시선이 쏠린다.

광주는 창단 첫 파이널A 진출 위업은 이뤘지만 이미 6위가 확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울산에 이변 대결은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다. 1위 질주를 이어왔던 울산은 앞선 전북현대와 맞대결에서 0-1로 지면서, 2년 연속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게 됐다.

전북전 패배로 울산의 자력 우승은 불가능해졌지만 우승 경우의 수는 남아있다.

득점에서 우위를 보이는 만큼 전북과 동률을 이룰 경우, 우승권은 울산에 안기게 된다. 단,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울산이 광주에게 승리를 거두고, 대구와 최종전을 치르는 전북이 패배해야 한다. 전북이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한다면 울산은 최종전에서 다시 한번 아쉬움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울산 입장에서 광주는 달갑지 않은 팀이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1-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광주는 절박한 승부에 나서는 울산을 상대로 ‘하던 대로’ 승부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리그에서도 손꼽는 ‘삼각편대’ 펠리페-염원상-윌리엄스를 앞세워 울산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염원상에게 눈길이 쏠린다.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던 염원상은 4라운드 울산전을 통해 K리그1 데뷔전을 치렀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울산을 흔들었다.

아쉬운 자책골로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나기는 했지만, 광주는 염원상의 발 덕분에 3연패 끝에 K리그1 첫 승점을 신고했다. 첫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던 염원상은 올 시즌 7골 2도움을 과시하면 상당히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박진섭 감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선수들도 프로답게 마지막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부어 준비를 마쳤다”며 “컨디션이 좋은 선수와 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선수를 뽑아 울산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숨막히는 4강 싸움 중인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는 내달 1일 오후 4시 안산그리너스와 홈페덱전을 치른다. 전남은 앞선 대전하나시티즌의 25라운드 홈경기에서 1-2로 패하면서 3위에서 다시 6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3위 서울이랜드와 승점 2점 차, 4위 경남FC와 5위 대전과는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경기 포함 두 경기만 남겨두고 있는 만큼 3-4위 전쟁이 K리그2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한편 전남은 마지막 홈경기가 열리는 1일 경기장 외곽에서 ‘드래곤즈 아울렛’을 운영한다.

아울렛 운영시간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경기 종료 때까지이며 유니폼, 클럽웨어, 사인볼, 액세서리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시 1골 1도움 바르사, 호날두 빠진 유벤투스에 완승

유럽축구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무산된 ‘메호대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원맨쇼를 펼치며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이끌었다.

메시는 2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바르셀로나의 2-0 승리를 연출했다.

G조에서 2연승을 거둔 바르셀로나는 승점 6(골 득실+6)으로 선두가 됐고, 1승 1패를 거둔 유벤투스(승점 3·골 득실+3)는 2위에 자리했다. 디나모 키예프와 페렌츠바르시는 나란히 1무 1패로 3, 4위에 랭크됐다.

호날두와 메시가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에서 같은 조에 속하면서 전 세계 팬들은 일명 ‘메호대전’(메시와 호날두의 맞대결)에 큰 관심을 가졌지만, 호날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이번 시즌 둘의 첫 맞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2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유벤투스 선수들을 제치고 드리블을 하고 있다.

라이벌이 빠진 상황에서 메시의 발끝은 언제나처럼 매서웠다.

메시는 전반 14분 하프라인 왼쪽에서 그라운드를 관통하는 ‘빨랫줄’ 크로스로 반대편 중원 터치라인 부근에 있던 뎀벨레에게 볼을 전달했다.

뎀벨레는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고, 볼은 수비수의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대 왼쪽에 꽂혔다.

메시의 패스는 도움으로 기록됐다.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메시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개인 통산 3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역대 도움 1위인 호날두(38개)의 기록에 3개 차로 따라붙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21분 교체로 투입된 ‘18세 공격수’ 안수 파티가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유벤투스의 페데리코 베르나르데스 키에게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었다.

키커로 나선 메시는 정확한 원발솟으로 추가골을 터트리며 바르셀로나의 2-0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2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유벤투스 선수들을 제치고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